

SERMON 11 OCTOBER 2015

지난 화요일 아침, 나는 파라마타에 있는 Leigh Memorial 연합교회 부엌 식탁에 앉아있었습니다. 제 남편과 저는 매주 화요일 시간이 허락한다면 아침 8시 30분에 그곳에 갑니다. 아침을 식사를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니고 다가올 주일 성경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토의하기 위해서지요.

우리가 앉아있던 곳은 15살난 소년 Farhad 가 총으로 민간인 경찰을 죽이고 자기도 총에 맞아 죽은 곳에서 불과 2-3백 미터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울부짖는 욥기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내가 앞으로 가도 거기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뵈을 수 없구나." 욥은 비통해 하고 있었습니다. 욥이 단지 하나님께 그의 상황을 이야기하였더라면, 하나님은 욥의 상황을 이해하셨을 것이고 욥은 어떤 답을 찾고 그의 상황이 왜 이렇게 잘못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식탁에 앉아 있던 우리들 중 몇몇은 욥이 자신이 찾는 대답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자신의 고통의 어떤 종류의 결론에 도달한 대목으로 서둘러 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 구절 읽기는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근처에 있는 학교의 어린 학생에 의한 총기 사건으로 인한

충격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내가 이 내용을 이 번 주일에 어떻게 서서 설교 할 수 있을 까" 하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마 우리는 빠르게 이런 감정들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살아가면서 많은 충격적인 뉴스들을 매일 접하니까요. 그러나 저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을 내려보며 설교단에 서 있을 수는 없을 것이 라고 스스로 생각 했습니다. 저는 그 높이와 거리로 내 자신을 분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봉독에 충실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고통을 함께 분담하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말없이 지지를 해줄 공동체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는 진정 우리의 약한 곳을 드러낼 수 있고, 의문을 나타내고, 의혹을 품으며, 두려워할 수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주께 감사하고, 생명과, 은혜와, 용서와, 확신과, 자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옴과 같은 상황에서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몇 십 년 전 에던버러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가족들과 친구들을 떠나서 뉴질랜드로 가기 위해 비행기를 타기 전 마지막 주일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한 곡을 저를 위해서 불러 주었습니다. "주님 당신은 내 앞에 그리고 내 뒤에 계십니다" "만약 제가 새벽 여명을 향해 달리거나 바다에서 가장 먼 해안에 머물러도 주님의 강한 팔이 저를 편안히 쉬게

하시고 주님의 오른팔이 나를 영원히 보호하실 것 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한 욥기에서는 저를 그렇게 하도록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에서 진정 두려운 공허함과 외로움의 메아리들을 전합니다. 오늘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 날지 모른채 그저 기다리는 부활 전날 토요일 입니다. 그날은 두려운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기 쉽고 또 우리는 이러한 불편함에 빠져 있기를 바라지 않아 움직여 나아가지만 그로인해 더 미궁으로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저는 저의 가족과 운전을 해서 스코틀랜드의 산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러나 눈은 멈추었고 도로는 다시 운전 할 수 있도록 열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파른 급경사 길을 우리 왼쪽으로 두고 좁은 언덕길에서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고,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으로 인해 언덕에 있던 눈이 우리 오른쪽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천지가 온통 흰색으로 변하여 방향감각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기 때문만이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방향 감각을 잃을 수 있는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나 공간을 인식하는데 필요한 표지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인지에 대해 알지 못했으며 꿈쩍달싯도 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짐작하시다시피, 저와 가족은 그 상황을 견뎌냈고 그 사건도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에게 부재란 무엇인가를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은유가 되었습니다. 부재는 없음을 의미합니다. (The nothingness of absence). 부재는 임재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부분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하나님은 결코 부재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간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경우는 욥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지는 않았었지만 시편 22 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울부짖었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함께하시지 않으심을 아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느낄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고 또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신앙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어디에 있던 교회의 우여곡절의 기간 동안, 번영의 시간과 장소에서 신앙의 불길을 유지하며 이 불길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지켜줄 수 있게 하는 교회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송가를 부를 때 떠오르는 이미지와 같습니다 " 각 섬과 대륙을 따라 여명은 또 다른 날로 인도합니다, 기도의

목소리는 절대 침묵하지 않고 찬양의 끊이질 않습니다." 우리를 잠재우는 태양은 서쪽하늘 저편의 친구들을 깨웁니다. 매 시간 우리의 입술은 당신의 놀라우신 행하심을 높이 찬양합니다." 적어도 이 찬송가의 찬양처럼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항상 그렇게 느끼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을 때 다른 누군가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재시에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두려움이 우리를 제압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앞으로 내려야 하는 결정에 있어 우리가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걱정과 불확실성이 있을 지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이 캄캄한 상태는 아닙니다. 어쩌면 "기다려 보자 (wait and see)"의 시기를 견뎌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정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 혹은 용기가 부족하지도 않고 목적과 보살핌이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용기를 읽으면 하나님의 부재하실 수 있다고 느낄 수 있을지 모르며 또 우리들 중에 결코 적지 않은 분들이 용과 같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능력은 무능력함과 괴로움의 이미지가 무자비한 잔인성과 폭력에 대항해서 놓여있을 때 우리 시대에 잠복해

있는 두려움을 표현해내는 것일 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매일 사용하는 "테러"라는 용어는 사람들 간의 선의와 평화를 만들어가는데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들 중 많은 부분이 부재함을 의미합니다.

가치에 대한 질문은 오늘 읽은 복음서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훌륭하게 잘 자란 한 부자 청년은 아마 그의 부모의 자부심과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잘 교육 받았고, 집안이 좋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의 배경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그는 옳은 것을 하기 원했고 또 그렇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아주 완벽한 청년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서만 보실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잘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젊은 청년은 무엇인가를 느꼈습니다. 그는 마음이 불편했음이 틀림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왜 예수님께 다가와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겠습니까? 그는 미래에 대해서 아직 까지도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였을까요? 그는 분명히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가서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라..."

우리가 우리의 종교적인 신앙이 요구하는 모든 옳은 것을 지키고 행하면서 동시에 돈과 안락함을 누릴 때 우리에게 부족한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려운 질문이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답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단 하나는 바로 그 청년은 자신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안전과 안락으로부터 스스로를 완전히 해방시키려는 자신의 바람을 성취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저 자신에게 주는 답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자유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제자들은 그 부분에 있어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 그들이 자유함을 느꼈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임했을 때 그들은 정말 여러 흥분된 느낌 중에 해방감을 느끼는 찬란한 순간이 있었을 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 다음 날의 끼니를 걱정하고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언제 다시 볼 수 있을 지 등을 걱정하면서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그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할 때도 이러한 해방감을 만끽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젊은 청년이 다시 돌아와 그를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젊은 청년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소유한 것들,

자신의 안위, 그리고 자신을 규정한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그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는 처음으로 그가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테스트에서 실패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 테스트가 너무 어려워서 예수님은 우리의 상상을 깨는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은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우연적으로 쓰인 은유는 아니었습니다. 예수살렘에 “바늘의 눈”이라고 불리는 문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마도 그 생김새 뿐 아니라 폭이 너무 좁아서 부쳐진 이름일 것입니다. 낙타가 그 문을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짐을 다 내려 놓고도 낙타의 몸을 완전히 밀착해야 들어 갈 수 있는 문입니다. 은유적으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그렇고 그 부자 청년은 많은 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그 중 얼마만큼이 정말 필요하신지 물으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짐들을 우리의 과거로부터 떠안고 가고 있으면서 이로부터 자유 할 수 있을 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나요? 우리가 우리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 얼마나 정말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잃을까봐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을 잃을까봐 두려워할 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한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인가를 잃을까봐 두려워 무엇을 하고 어디를 가고 누구를 따르는데 있어 우리의 선택을 제안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진정 개인적인 차원에서 혹은 믿음의 공동체 차원에서 무엇이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무엇이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님 부르심의 신비에 따르게 하는지, 그것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볼 수 없을 때 우리의 눈을 열어 그것을 믿게 하는 것일까요? 그 어딘가에 개인으로서 그리고 공동체로서 우리가 누구인지 상기시켜 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살때 우리가 누구인지 더 잘 발견 할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질문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우리가 두려움과 고통의 시기를 통해서 서로를 도와줄 때 계속해서 의미를 찾는데 힘을 주는게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뿐 아니라 우리와 가치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이 세상에서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삶을 키워가는데 힘쓰고 있지 않는 한 이러한 질문에 자신에게 “예”라고 대답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거꾸로 된 왕국과 같습니다.

부자청년과 예수님 제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매우 분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오늘 읽은 복음서와 우리의 소비지향적이고, 쾌락 추구적인 사회와의 대조도 또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흥을 깨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분은 무엇이 진정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 하는지를 아시고 그것이 우리를 자유로움으로 부른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삶의 여러 많은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하는지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저는 욕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부재하심 그리고 그 젊은 청년을 포로로 사로잡은 그에게 부족했던 한 가지 그것과의 연관성에 대해 고민해보았습니다. 부재와 자유. 하나는 허무함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둘 다 어떠한 것이 드러날지 기다려 보아야하는 변환기적 경험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느낌이 가져오는 그 두려움을 견디어 내라고 이야기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그 고통은 원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유함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으며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우리의 짐을 내려놓아도 괜찮다고 이야기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하고 나서야 우리는 자유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서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주위에 누군가가 우리를 지지해줄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또 나중에 그들이 힘들어 할 때 우리가 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모든 것이 강력한 그런 공동체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현실적으로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 함께 웃고, 함께 눈물 흘리며, 이야기하고, 기도하며, 침묵하고, 함께 찬양하는 그런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어떤 찬송가를 불러야 할지 결정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짐작하시고 계신 대로 저의 생각들이 매우 복잡하고 어두운 골목을 서성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게 뒤늦게 생각난 찬송가 한 곡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곡을 아시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사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뉴질랜드 책 "알렐루야 아테아로" 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이 가사는 얼마 전 까지 오타고 대학에서 영문과 교수로 계셨으며 감리교 오르간 연주자이며 음악가인 콜린 킵슨 교수님이 적으셨습니다.

그 길의 끝과 이정표들이 끝나는 곳

오늘 하루의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 아브라함의 하나님 되소서

우리의 길로 보내주소서

주님 당신은 우리의 시작이셨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에 주님을 뵙니다,

천국과 이땅을 향한 우리의 희망.

해안이 끝났을때 우리는 여행을 계속 합니다

하늘과 바다의 가장자리로

선원의 친구가 되시고, 돌고래 같이 길잡이가 되어 주소서 주여,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해 주소서
구름이 몰려들고 바람이 강할때
내일의 폭풍이 다가 올 때
머리 위를 나르는 영혼의 새가 되소서
누가 우리의 두려움을 빼앗을 것인가.